



圖書館學 세미나 개최

“우리 나라 圖書館學에 관한 세미나”가 지난 2月 2日 國立도서관 세미나실에서 韓國圖書館學會와 本協會의 共同主管으로 개최되었다.

圖書館學界와 圖書館現場의 中堅司書 및 本協會專門 委員등 50여명이 參席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이날 세 미너의 主題와 發表者는 다음과 같다.

第1主題 “교과 과정문제” 정필모 교수(中央大)

第2主題 “교육제도 문제” 최성진 교수(성대)

第3主題 “전문기관 및 전문직 수요전망” 한상완 선 생(국제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한편 각주제 발표에 이어서 정해진 司會者 및 討論者 를 中心으로 발표주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李春熙교수(성대), 金世翊 교수(梨花女大) 이병복 교수(연세대)가 主題別 司會를 맡았고 趙혜봉 교수(성대도서관장) 구자영 교 수(이화여대) 이한용 교수(연세대) 한순정 교수(숙명 여대) 정용선 선생(이화여대도서관) 손정표 교수(경북 대) 정형우 교수(연세대) 김효정 교수(중앙대) 노옥순 교수(이화여대)가 討論者로 進行을 맡아 주셨다. 한편 사공철 교수(숙명여대) 권기원 교수(한사대병설전문대) 이순자 선생(숙명여대)은 각각 記錄을 맡았다.

이날 세미나 결과는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여 앞으로 도서관학 교육발전을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로서 利用 될 것이다.

公共圖書館部會 常任研究會 開催

公共圖書館部會는 지난 2月 9日 서울시립 정독도서관에서 常任研究會를 개최하고 78年度 決算 및 사업보고와 79年度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는 한편 春季 公共圖書館 세미나를 오는 4月 26日 27日 양일간에 걸쳐 제주도립도서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學生 1人當 年間도서구입비 5천원씩 책정의무화

문교부는 2月 21日 全國私立大學에 대해 올해 學生 1人當 도서구입비를 5천원씩 의무적으로 책정하라고

강력히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내년도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교부가 私立大學에 대해 도서구입비의 액수를 책정해서 도서확보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교부의 이 指示로 전국 64個 사립대학이 올해 지출할 도서구입비는 총 11억 3천 6백만원이다.

대학설치 기준령에 규정된 대학의 도서 保有기준은 學生 1名에 30卷의 도서를 준비하되 學科마다 5천권이 상의 도서와 5種이상의 학술잡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학생 1人당 평균 26.3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일부 대학은 도서보 유기준의 30%정도밖에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비치도 서의 내용이 몹시 빈약하여 대학도서관 장서로서 적합 치 못한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문교부의 조치로 각대학도서관의 재원확보가 다 소 확실해 졌다고는 하나 도서관에산중에서 人件費까지 지출하고 있는 대학이 다수 있어서 아직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자유 로 지출할 수 있는 學生 자율적 경비에서도 적절한 액 수의 도서비 의무화 책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협회는 기회있을 때마다 대학도서관 예산확보 문 제등을 문교부 실무자들에게 강력히 理解시킨 바 있다.

국회도서관 新築추진

이름난 美國議會도서관 시스템을 인용, 우리 나라도 서관의 중앙집중식 冊制度를 시도했던 국회도서관은 매년 6만권 이상 늘어나는 藏書관리를 위해 도서관전 물을 신축키 위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金鍾浩 館長(本協會 會長)은 2월 15일 이같은 計劃을 밝히고 「도서의 量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永登浦와 江西區 麻浦일대의 일반주민들로부터 도서관 利用신청이 쇄도하여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汝矣島 의사당 地下를 書庫로 이 용하여 濕度 등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 뿐만아니라 의사 당구내 경비관리상 일반인의 열람이 불가능하여 국내 에서 자랑하는 藏書가 잘 活用되지 않고 있다.

江南에 국립중앙도서관 分館 一千坪대지에 4億원 들여

國立中央도서관(관장 孫禧植)은 서울 江南地域에 1천 평의 매지를 확보, 국립중앙도서관 江南분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분관 신축을 위해 대지 매입비 1억여원과 시설비 2억 8천만원 등 4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했는데 현재 신축후보지를 물색중이다.

江南지역에는 지난 12월에 서울시가 驛三洞에 驛三도서관을 着工했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다른 國家中央도서관의 계기능을 살리기 위해 자료가 용자를 위한 도서관으로 시설과 체제를 갖출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분관을 설립한 것은 1957년 9월 阿峴分館을 설립한 후 최초의 일이다.

한편 서울시의 마포로 확장 공사로 대지와 건물일부가 도로에 흡수된 阿峴分館은 종전에 일반열람실 4백석, 아동실 50석, 참고실과 교양실 2백10석을 갖추고 있었는데 건물이 8백 41평에서 5백 13평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열람실축소가 불가피해진다. 대지도 9백 83평에서 절반에 가까운 5백 5평이 됐다.

현재 배관공사와 외관작업, 열람[테이블]대체작업을 하고 있는 阿峴分館은 아동실과 참고실 교양실을 없애고 일반열람실만 두기로 했다.

阿峴分館은 3월중순에 공사를 끝내고 개관할 계획인데 江南分館이 신축개관 될때까지 공공도서관과 같이 수험생을 위해서도 개방할 예정이어서 본래의 기능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서울시 아동의 해 事業計劃 — 專用도서관 만들기로 —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해를 맞이하여 공원동산 30개소 어린이 도서관 및 축구장 등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0일各界人士가 參席한 가운데 확정된 「서울시 세계아동의 해」 행사 및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기본사업외에도 21개동에 아동문고를 확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를 위한 영화상영을 권장하기로 했다.

올해를 아동복지 기반조성의 해로 정한 서울시는 어린이의 정신을 건전하게 함양시키고 정서순화를 위해 어린이 민속잔치와 대규모 여름 캠핑을 갖기로 했다.

江南사회복지학교 도서관학과 新設

江南社會복지학교는 79學年度에 圖書館學科를 新設하고 40명의 新入生을 모집했다. 이로써 서울의 전문대학에 圖書館學科는 崇義女子實業專門大學에 이어서

2個전문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國立中央도서관 專門職 補充

國立中央도서관은 지난 2월 22日 各大學도서관학과 및 專門大學도서관학과의 추천을 받아 公開시험을 거쳐 성적순위에 따라서 13名의(大學卒 7名, 專門大卒 6名)司書を 선발하였다.

이번 공개채용은 78年度에 증원된 專門職을 補充한 것인데 專門大에서 40名, 大學에서 18名이 응시하여 6대 1의 경쟁율을 보인 가운데 박 영희씨(成大도서관학과 졸업)와 박 선희양(계명대병설전문대 도서관학과 졸업)이 각각 최고 득점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清原郡 教育廳

학교도서관운영 실무연수회 개최

忠北清原郡 教育廳(교육장 沈鳳鎭)은 79年度 學校도서관운영의 正常化方案의 하나로 管内 各級學校 69校(初 58, 中 9, 高 2)圖書館 담당 豫定者 實務研修會를 1月 10日~11日 兩日間(14時間)에 걸쳐 실시하였다.

研修內容과 講師는 忠北道 教育委員會 中等教育課 劉 成鍾 獎學士의 「情報時代의 情報管理」란 特講과 清原郡教育廳 河東植 獎學士의 「學校도서관 운영의 實際」란 資料로 圖書館의 分類目錄 등의 정리업무를 비롯하여 學校도서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강의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管内 學校에는 韓國十進分類法(KDC)에 의한 資料整理의 통일을 기하게 되었고 도서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해 놓았다.

한편 忠北教育委員會는 冬季休暇中 各市郡 教育廳別로 圖書館 擔當者 實務研修會를 1~2日간 실시토록하였는데 河東植 獎學士는 1月 18, 19日 清州市, 22日 槐山郡 25日 提川郡, 26日 丹陽郡교육청 주관의 관내 初中高等學校 圖書館擔當者 研修會의 강사로 초빙되어 學校도서관 운영의 實際에 대한 강의를 맡았다.

韓國原子力 研究所

도서관실 기구 확충

韓國原子力研究所는 圖書館室의 機能을 크게 확대시켜 圖書館室 中心으로 研究事業을 활발히 추진키로 하고 이에 맞추어서 原子力情報센터部(부장 金宗會)를 설치하고 同部에 圖書館室, 技術情報室 INIS담당실의 기구를 두기로 하였다.

故 張暎根씨 장서 5천권 檀國大에 기증

내무부장관을 지낸바 있는 故 張暎根씨의 미망인 姜萬順부인 (56)은 張씨의 장서 4천 5백여권을 단국대도서관에 기증했다. 法律書籍 잡지 판례집이 주축이된 이 장서는 張씨의 호를 따서 靜湖文庫로 영구보관 활용된다.

九美貿易 유네스코 功勞牌 受賞

유네스코 쿠폰 代行商事인 九美貿易株式會社(代表 金禹仲)는 유네스코에서 10年마다 1회씩 수여하는 功勞牌를 지난 1月 30日 유네스코 韓國委員會 사무총장실에서 받았다.

금년이 유네스코 韓委創立 25周年을 맞이하는 해로서 計劃된 여러가지 行事中的 하나로 유네스코에 登錄되어 10년간 근속공적이 있는 商事에게 功勞牌를 수여한 것이라고 한다.

大韓出版文化協會 정기총회 개최 — 새 會長에 鄭鎮肅씨 —

대한출판문화협회 새 會長에 鄭鎮肅씨(乙酉文化社代表)가 선출되었다.

出協은 지난 1월 25일 협회강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새 회장에 鄭鎮肅씨, 부회장에 孫永壽(電波科學 代表) 柳益衡(汎文社代表)씨를 각각 선임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23일 하오에 있었던 금년도 정기총회에서는 출판사업 및 관련산업 현대화 자금 1백 50억원 배정, 인쇄용지의 확대상선 및 인쇄용지에 대한

과세의 철폐 또는 인하, 도서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0세율적용,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의 조속실시 기업체의 사내도서관시설 및 도서구입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마을文庫 全國道支部長 會議

마을文庫本部는 지난 2月 8日 全國道支部長 및 事務局長 會議를 개최하고 지난해의 “마을文庫育成基盤 조성의 해”에 이어서 금년도를 “마을文庫 內室을 가꾸는 한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새마을총서 20만권 간행 보급, 전국市郡지도자 교육실시, 마을문고 경진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2月 16日에는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78년도 결산 및 7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시켰다.

韓國비블리아學會 任員改選

韓國비블리아學會(成均館大學校圖書館學科 및 同大學院, 한국사서교육원 研究學會)는 지난 2月 3日 文化財管理局에서 定期理事會를 개최하고 1979年度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시키는 한편 任員改選이 있었다.

한국비블리아 학회의 新任 會長에는 김전배(文公部 문화재관리국 제2과장)씨가 선출되었고 부회장에는 박상균씨(東國大도서관) 성낙천씨(산업은행도서관)가 각각 선출되었으며 총무이사에 임승양씨(서강대도서관) 財政담당이사에 윤승현씨(서울대도서관) 섭의담당이사에 조득남씨(충전대도서관) 연구담당이사에 김광영씨(외교안보연구원)가 각각 선출되었다.

신년도 주요 사업으로서는 學會誌 발간, 學術發表會 개최 및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1979년 2월 25일 인쇄
1979년 2월 28일 발행

<월간> 도 립 월 보

제 20 권 제 1 호

발행인 김 중 호
편집인 박 대 권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100-177

(국립중앙도서관 구내)

(우편번호 100) 전 화 (22) 4864·5613

대체구좌 서 울 537530

사 서 합 서울중앙 2041

문화공보부 등록번호라-2116

등록일자 1976. 9. 4

인쇄인 삼성인쇄주식회사 체 북 기